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7호 【루계 제25320호】 주체105(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자

##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주체혁명의 만년대계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고 우리 조국과 민족, 세계자주화위업의 앙양한 미래를 펼친 휘황한 등대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백승의 기치,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증하고 천만심장을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 제7차대회 보고의 사상과 정신을 확고한 신념으로 굳게 간직하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충천한 기세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2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김수길동지와 김덕훈 내각부총리,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당일군양성기관 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혁명적인 사상과 로선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하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힌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힌 위대한 정치대강》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총결기간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과 로선들을 밝혀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세계앞에 엄숙히 선언한 강령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총결기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 무궁무진한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된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나아가는것이 조선혁명의 불변침로임을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명시됨으로써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불변할 조선혁명의 억년기틀이 마련되고 주체혁명은 백승의 한길로만 줄기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여준 불멸의 대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완성하는것을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과 함께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사회주의강국의 본질적징표로 규정해주시고 그 건설을 위한 투쟁과업들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장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전인민적인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담보하는 과학적인 혁명로선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위대한 강령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명시된것을 비롯하여 보고에서 제시된 혁명로선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력사적적인 정치대강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진로》라는 제목의 론문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위업은 곧 수령의 위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지침은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

그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에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향과 방도가 집대성되여있기때문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담당자, 주체를 튼튼히 준비시키고 그 역할을 높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향과 방도들이 명시되여있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이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진로이라는것은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와 현실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그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온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원동력으로 삼고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에서 특기할 정치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세계적인 정치적동란과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강경보루를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전 력사적과정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과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 견인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김덕훈 내각부총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강위력한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하는 전략적로선이라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틀어쥐고나갈때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와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다.

또한 인민정권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국가사회생활전반에서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사회의 정치적안정과 단결을 이룩하여 강위력한 정치적력량을 마련할수 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력자강의 정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억세게 준비시킨다.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인민정권의 경제조직자적역할을 높이며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인민경제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자체의 경제적력량을 빠른 기간안에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토론자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울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투쟁방식을 명시해주는 전략적로선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은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새롭고 선진적인것을 적극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위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칠수 있게 하는 투쟁방식, 3대혁명의 방식을 밝혀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기반으로 하고있으며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바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당이 높이 추켜든 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이야말로 민족만대의 부강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위력한 로선이라고 강조하였다.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은 《조국통일의 숙망을 실현하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선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중대한 혁명임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론증하였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선도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중대한 혁명임무로 되는것은 첫째로, 조국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고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 숭고한 위업이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는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주체적통일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세대를 이어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류자주위업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사상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력사의 풍파를 파감히 뚫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고 주체조선의 존엄을 높이 떨칠수 있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선도해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중대한 혁명임무로 되는것은 둘째로,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실현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은 전국적범위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위업이며 세계자주화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계를 건설하는 위업이다.

장구하고도 간고한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은 언제나 온 겨레에게 통일의 밝은 서광을 안겨주었으며 온갖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침로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것이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할것이다.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 명선영은 《조선로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결정적담보》라는 제목의 론문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빛내임으로써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향도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조선로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건설하여야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가 튼튼히 선 참다운 수령의 당,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를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전도양양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현시기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은 곧 당을 철저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당으로 되게 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철저히 확립될 때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조선로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혁명적원칙성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가장 과학적이며 완성된 혁명의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혁명적원칙성을 일관하게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초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밝혀주신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투쟁의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 불멸의 지침이다.

정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 총매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높이 들고나가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직 그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며 그와 배치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요소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당의 결정과 지시를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5대교양에 모를 박고 천만군민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침입식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화시키며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에서 발잔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의 돌발적인 정치사상사업이나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는 뒤거둠식의 방법, 형식주의, 도식주의방법을 단호히 배격하며 박달나무를 쐐기를 박아 짜개듯이 사상의 토문을 일제히 열고 요진통에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이 중요하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누구나 이 시대적물음에 떳떳이 대답할수 있게 자기가 맡은 혁명초소에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타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야 한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사회주의경쟁열풍으로 끓어번지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파감히 전개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토론자들은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을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3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날을 회고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안겨줄 당과류생산을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며 하늘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덕을 깊이 전할수 있게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곡산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본보기로 내세울만 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께서 개건된 평양곡산공장을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화공사에 의해 공장설비의 95%이상이 국산화된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쯘하게 차려놓았는데 하나와 같이 미담자처럼 생겼다.》고 말씀하시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블로그스포트. 루》,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TV방송, 환구망, 동북망,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미국의 VOA방송, 인터네트웨브싸이트 《구글뉴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블로그스포트. 루》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새로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으며 도이췰란드, 나이제리아의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이 소식들을 올렸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불스까지부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관람하신 소식, 새로 일떠서고있는 통악산비누공장건설장과 새로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마푸또

###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모잠비끄해방전선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모잠비끄해방전선당이 지난 50여년간 귀국 정부와 인민을 이끌어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사회경제적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에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5(2016)년 6월 24일 평양

#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려버리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 영웅조선의 대답—6.25뒤에는 승리의 7.27이 있다

전화의 불길속에 휩싸였던 1950년대의 조선,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의 눈길들이 지도우를 더듬었다.

진보적인류의 마음과 마음들이 싸우는 조선을 찾으며 가슴을 조이군 하였다.

인구도 령토도 크지 않은 조선, 태양마저 검은 연기속에 피칼이 타는 북남삼천리.

하지만 불속에서도 연기속에서도 영웅적인민은 살아있었을뿐아니라 싸워이겼다. 신생조선이 미제의 전쟁도발에 승리의 7.27로 대답하였다.

청소한 공화국을 승리에로 이끄신분, 그이는 과연 어느분이시였던가.

그이는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세계의 어느 누가 생각이나 해보았던가.

너무도 젊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6.25의 불을 지른 미제에게 7.27의 승리로 죽음을 주실줄을.

인민의 마음속에, 세계의 량심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으로 계시였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쥐락펴락하시여 20세기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시고 영웅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신 령장중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영웅전을 우리 살가 펼쳐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다는것, 바로 이것이 력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바위도 불타고 다람쥐마저 보금자리를 잃어 전사들의 품으로 뛰여들었던 조국의 고지들에는 어느덧 수풀들이 무성하다.

미국놈들이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던 우리 조국의 그 어디에나 사회주의무릉도원이 펼쳐지고 날에날마다 건설의 동음 높이 울리고있다.

전쟁을 책이나 영화의 화면으로 리해하며 성장한 새 세대들이 혁명의 중진을 이루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누구나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1950년 6월 25일,

이날 새벽 미제는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적들은 불의의 공격으로 우리의 방어진지를 돌파한 다음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고 떠벌이며 기고만장하여 날뛰였다.

조선의 운명은 과연 어찌될것인가.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땅을 지켜보고있을 때 위대한 천출명장의 음성이 백두의 뢰성마냥 울려퍼졌다.

놈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소.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일제의 100만대적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백두산청년장군에서 미제에게 선언하시였다.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30대의 젊으신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군림한 미제는 한갖 승냥이였다.

승냥이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격이다.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벼치는 승냥이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이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담력과 배짱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것이였다. 미제가 아니라 그 하내비라도 때려눕힐 강철의 령장의 기상이고 담력이였다.

그토록 위대한분이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6월 25일에 진행된 내각비상회의에서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하여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할데 대하여 언명하시였다.

적들의 전쟁도발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아무리 강대한 적들이라고 하여도 추호의 동요없이 맞받아나가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립장은 이렇듯 확고하시였다.

그날 내각비상회의에 참가하였던 홍명희선생은 후날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때 장군님의 그 배짱에 정말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네. 지금까지 전쟁력사를 보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하여도 불의의 선제타격을 받았을 때에는 그로 하여 받은 손실과 혼란을 수습할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 불가피하게 뒤로 물러서는것이 용인된것이였지. …

그런데 불시에 덤벼든 미국놈들에게 즉시적인 반공격을 하다니 글쎄 보통담을 가지고서야 어디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인가.》

원쑤들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그날에 벌써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천하를 울리는 호호탕탕한 웃음으로 이 땅을 뒤덮은 불구름을 휘몰아가시였으니 싸움의 승패는 그때에 이미 결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날 전체 조선인민에게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여 우리 인민이 자신의 힘으로 공화국을 사수하며 조국의 남반부를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밝히시였다.

인류력사는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절사적으로 궐기한 인민들은 언제든지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에 무한히 고무된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전선에 탄원하였다.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라는 노래를 높이 부르며 우리 인민군대는 떨쳐의 용창을 비껴들고 성난 사자마냥 적진에 뛰여들었으며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였다.

반공격으로 이행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지역에 침입한 적들을 순식간에 격퇴하고 38°선을 넘어섰다. 인민군대의 결정적인 반공격에 의해 북침공격의 일선에 내몰렸던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퇴각하게 되였다. 단숨에 공화국북반부를 먹겠다고 덤벼들었던 적들은 인민군대의 드세찬 반공격을 받아 전면적으로 패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뛰여나고도 명철한 군사적지략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반공격개시 3일만인 6월 28일 원쑤들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고 피뢰중앙청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렸다.

그때의 감격에 대하여 한 인민군땅크병은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놈들의 기발을 찢어내려 갈기갈기 찢어 내동댕이쳤다. 놈들의 기발은 절레조박이 되여 어두운 중앙청뒤구석으로 날아떨어졌다. 게양대에는 우리의 공화국기발이 창공을 가르며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기발은 바람에 휘날리며 게양대의 마지막정점까지 올랐다. 그 순간 나는 걷잡을수 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목이 뻑 메여오고 눈앞이 흐려져 더는 울려다볼수가 없었다.》

검은구름이 뒤덮이였던 서울의 하늘, 죽음의 마굴이였던 서울의 하늘에 3천만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안고 공화국기가 세차게 나붓꼈다. 두주먹으로 흐르는 눈물을 마구 문지르며 공화국기발을 올려다보던 인민군용사들의 환희, 인민들의 격정이 서울시내를 열광의 파도로 설레이게 하였다.

《불퇴의 선》, 《최종방어선》이라고 장담하며 구축해놓았던 금강방어선은 단 이틀사이에 폴먹은 담벽마냥 무너지고말았다.

대전에서 《시범을 보여 신뢰를 얻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미제침략군사단장도 포로되는 수치를 면할수 없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우리의 영웅적해병들은 주문진앞바다에서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우에 떠다니는 섬》이라고 하던 적중순양함을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인민군부대들은 한달 남짓한 기간에 남반부 전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였으며 9월 상순에 이르러서는 적들을 대구, 부산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을수 있었다.

백두산장군의 철의 담력과 배짱앞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군의 《신화》는 조선전쟁초기에 벌써 이렇게 깨여져버리고말았다.

하기에 조선전쟁의 앞날을 우려하던 세계의 벗들은 《이것은 동서고금의 어느 전쟁력사에도 있어보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현실화된 기적이다. 미국은 이것을 타산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격찬하였다.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날 때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험천만한 전선길을 달려 전선사령부가 있는 수안보에까지 나가시여 백승의 방략을 밝혀주기도 하시였고 음소 사선천리를 헤쳐 지혜산에 오르시여 1211고지를 사수할 작전적구상을 펼치기도 하시였다.

전쟁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며 만나주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그 얼마였으며 전시생산을 위해 아전차를 달리신 길은 또 얼마였던가.

침략전쟁사에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고 우쭐렁거리던 미제를 덜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으신분은 너무나 젊으신 우리의 장군이시였다.

누가 말하였던가. 장군은 젊다고.

어느 누가 전쟁을 터치였던가. 젊으신 우리의 장군은 누리를 비치는 태양이라고.

…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랴!
만고풍상 혈전혈투의 파지가 그렇고
오매불망한 재건조국의 오늘은 더욱!
…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아, 삼천리 전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해방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신 절세의 영웅을 우러러 열렬의 시인이 높이 터치였듯이 그토록 젊으신 나이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쥐락펴락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령장중의 령장이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 진정 그것은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에 있어서나 담력과 배짱, 지략과 령군술에 있어서 이 세상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절출한 백두령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여 이룩된 력사의 필연이였다.

그렇다.

6.25뒤에는 승리의 7.27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전승의 축포를 자랑스럽게 쏘아올린 영웅인민, 영웅조선은 1950년대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폈던 미호전광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승을 경축하는 군중대회장에서 젊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만세!》의 함성을 높이 터치면서 《김일성장군찬가》를 심장으로 울어보던 우리 인민들의 그날의 격정이 오늘도 이 땅우에 세차게 끓어넘친다.

원쑤가 칼을 빼들면 장검을, 총을 내대면 대포를, 핵무기를 휘두르면 그보다 더한 핵억제력으로 원쑤들의 머리우에 단호한 철추를 내리고 조국통일위업의 력사적승리를 안아오려는것이 또 한분의 백두산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절대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정력에 넘치시고 위풍당당하신 모습으로 적들과 당당히 맞서 승리에 승리만을 떨치시는 젊으신 그이를 우러르며 오늘 세계는 위대한 1950년대에 전승신화를 창조하신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다시금 뵙고있다.

원쑤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1950년대의 교훈을 망각하고 이 땅에 또다시 6.25를 몰아온다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점만점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화의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싸워이길것이다.

백두의 산악과도 같은 필승의 신념과 협산준령도 단숨에 넘을 담대한 배짱과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선군령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의 7.27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

‖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

#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는것처럼 제국주의의 야수적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침략과 략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 진리와 함께 전체 인민이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데 대한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며 고유한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독점의 지배에 그 경제적기초를 두고있다. 자본주의경제는 리윤경제이며 리윤에 대한 무제한한 탐욕은 독점자본의 본성이다. 더 많은 리윤을 얻으려는 독점자본의 탐욕은 리윤증식에 유리한 해외시장과 해외투자처를 찾아 침략의 길로 나가게 한다. 독점의 지배가 강화될수록 제국주의가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우리와 맞서고있는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략탈로 배짐을 늘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다. 인디안살륙의 피바다우에 선 야만의 나라 미국의 력사는 략탈과 살륙, 무력간섭과 전복음모,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져있다. 미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전쟁의 로화가 그칠새 없었고 야수적인 살륙과 략탈이 동반되였다.

오늘 민족계급교양의 거점, 복수심의 발원점, 미제의 만행을 낱낱이 발가놓는 력사의 교발장으로 새롭게 일떠선 신천박물관은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제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미제의 우리 나라 침략력사는 백수십년을 헤아린다. 미제는 1866년 침략선 《서먼》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백년숙적이다. 특히 1950년대에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전대미문의 야수적만행은 평화의 교살자, 전쟁의 원흉인 미제의 침략적, 략탈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를 겨냥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승냥이는 백번 변신하여도 양으로 될수 없다. 미제는 무덤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승냥이이며 3대, 4대를 지난 후에들도 역시 달릴 짐승이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미제의 침략적, 야수적본성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위용에 기절초풍한 미제는 우리의 핵시설과 전략적군사대상물들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정밀롱습작전》계획까지 작성해놓고 핵전쟁연습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상식도 리성도 통하지 않는 미제와는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내린 최종결단이다.

강자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앞에서는 포악해지는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이다. 력사가 보여주듯이 지난 세기 5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에 담겨진 깊은 뜻을 뼈에 새기고 견결한 반제반미계급의식,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할것이다.

조 학 철

---

# 불멸의 전승업적을 빛내이시는 길에서

## 판문점에서 다지신 확고한 의지

주체101(2012)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적들의 총구가 항시적으로 도사리고있는 최대의 열점지역인 판문점을 시찰하실 때에 있은 일이다.

이날 판문점의 어려운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와 담판을 진행한 장소인 정전담판회의장에도 들리시였다.

몇개의 회담탁과 의자들이 있는 회의장안을 감회깊은 시선으로 돌려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생각은 깊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전물은 보기에는 초라하여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세상을 놀래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의의깊은 전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력사의 증견자인 이런 전물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일군들에게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더욱더 빛내이시여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는 천출명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일군들은 가슴속에 깊이 새기였다.

##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숭엄한 영상

몇해전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수대창작사를 찾아주시였다.

새로 건설되고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모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작품창작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몸소 현지에 나오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우리 수령님의 풍모가 그대로 안겨오게 형상한 작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창작사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에게 영상작품창작사업에서 나서는 지침을 안겨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전하는 수령형상작품들을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라고,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창작에서 기본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는 수령님의 모습이 그대로 안겨오게 하는것이라고, 이 원칙을 수령형상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는 수령님의 모습!

잊지 못할 그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 혁명사적지를 찾으신 사연

주체102(2013)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유평혁명사적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평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면서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떤 곳에 계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력사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였는가를 새 세대들에게 깊이 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력사의 땅 창성에 있는 유평혁명사적지는 우리 수령님께서 1950년 10월에 하루동안 계시면서 잊지 못할 사연을 남기신 곳이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앞둔 때에서 이곳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돌이켜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뜻깊게 경축하려는것은 단순히 전승절을 성대히 맞이하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과연 어떤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어떤 정신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는가를 온 세상에 과시하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때서 자신께서 유평혁명사적지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래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아올리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머나먼 길을 달리시여 산세가 험한 곳에 있는 혁명사적지에까지 찾아오신것이였다.

본사기자

---

# 후방도 전선

## 완강한 공격정신, 천재적인 지략

후방의 공고화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전시생산과 후방공고화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소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력량상 대비가 안되는 강대한 적,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공화국과 미제와의 력량상 대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말그대로 보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방을 전선의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강력한 보루로 꾸리는것을 전쟁승리의 관건적요인으로 보시였다.

전쟁이 일어난 즉시 전선과 후방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시고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월 초순 어느날 당시 산업성의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후방에서의 투쟁은 인민군대의 전투를 보장하며 결국 전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래서 후방도 전선이라고 말하는것이며 전쟁승리의 요인의 하나로 후방의 공고성을 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가지도록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경제를 전시경제로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업부문만이 아닌 농업, 철도운수, 체신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가장 신속하게 전시체제로 이행하게 되였다.

그 길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찾고찾으시며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어 군자리정신을 창조하였고 승리의 봄씨앗을 묻어가시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그 뜻에 이끌려 농민들은 전선원호의 보탑을 억세게 틀어잡을수 있었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전쟁사를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그 어느 갈피에 전쟁의 운명을 걸머진 최고사령관이 석수호르는 경도에 전시생산을 위한 큰걸음을 새긴적 있었고 불비쏟아지는 대지에 씨앗을 뿌린적이 있었던가.

전쟁의 그처럼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후방도 전선이다!》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미제를 쳐부시는 심정으로 전시생산을 힘있게 다그친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우리의 후방은 강력한 생산기지, 전략물자공급기지로 더욱 튼튼히 꾸려져 미제와의 물질적, 경제적대결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안아올수 있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인민이 인류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강 원 남

---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남강도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과연 무엇때문이였던가.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볼수 없었던 독창적인 군사전략과 전술, 전법들을 창조하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전승의 기적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 아니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류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백승을 떨쳐온 만고의 령장, 불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는 전쟁이 일어난 첫날 내각비상회의에서 단호히 선언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승엄한 영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하여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

이날 내각비상회의를 끝마치시고 당시 민족보위성의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대병력을 조선전선에 끌어들이기 전에 공화국남반부 전지역을 해방할데 대한 작전적방침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결정적인 반공격에로, 이것은 말그대로 적들의 침공을 즉시에 맞받아치는 전략이였다.

침략전쟁당시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괴뢰군무력으로 공화국북반부를 불의에 공격하여 전과를 확대하고 뒤따라 조선반도와 그 주변거지들에 배치되여있는 저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하여 우리 조국을 강점하려는 이른바 두 단계의 전쟁계획실행에 매여달리고있었다.

미제가 전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끌어들이자면 한달내지 한달반이라는 시일이 걸려야 하였다. 그리고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에 비해볼 때 자기들이 정신적인 면에서 렬세한 고용병들이라는것을 침략자들은 너무도 모르고있었다.

이런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 적의 약점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분석판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전선에서 적의 침공을 즉시 좌절시키고 일제히 반공격에로 넘어가는 동시이행전략으로 공화국남반부 전지역을 빠른 시일안에 해방하기 위한 작전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 나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최고사령부 작전대에서 구상하신 천재적인 전략과 전술은 그 얼마이며 몸소 위험천만한 전선길을 헤치시여 작전적의도를 빛나게 실현하신 이야기들은 또 얼마였던가.

백전백승의 지략을 펼치시는 위대한 령장을 모신 우리 인민군대앞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는 결코 《강자》가 아니였다.

수적, 기술적우세를 뽐내며 기고만장하여 날뛰는 미제침략군에게 첫 참패를 가한 오산전투, 뜨겁게 어려온다. 작전지도에서 오산일대의 미제침략군 전방진지를 가로채며 붉은 화살표를 힘있게 그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승엄한 영상이.

그이께서 그어주신 화살표는 미제승냥이놈들의 숨통을 꿰뚫는 날창이였고 미국의 《강대성》을 단숨에 박산낸 날카로운 장검이였다.

용감무쌍하게 돌진하는 우리 인민군대의 땅크에 의하여 적의 방어선은 돌파당하고 이어 그에 합세한 보병들의 포위작전으로 하여 《상승사단》이라고 하던 미24보병사단의 선견대인 《스미스특공대》는 괴멸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맥아더는 미합동참모본부에 보낸 전지에서 《적은 공세적이며 잘 훈련된 직업적군대이고 군최고수뇌도 우수한 지휘를 할줄 알며 전략전술의 원칙도 잘 리용하고있다.》고 고백하지 않을수 없었다.

정녕 우리 조국땅에서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 미제에게 전쟁첫시작부터 쓰디쓴 참패만을 안긴 군사적기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지략, 완강한 공격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우리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슬기는 전쟁승리의 요인이였고 확고한 담보였다.

그렇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탁월한 군사지략으로 언제나 승리의 화살표만을 그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포악한 강도무리를 무찔러버리고 이 땅우에 전승의 축포성을 높이 울릴수 있었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전승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 력사적인 로동법령을 발포하신 7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로동법령발포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첫시기 민주주의적인 로동법령을 발포하심으로써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노예로동의 잔재가 영원히 철폐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새 로동제도가 세워지게 되였으며 이 땅에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력사의 이날을 맞는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로동생활의 주인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로동법령을 발포하신 7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2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 총매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박봉주동지, 양형섭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와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안의 기관,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로동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자》를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우리 나라 로동제도는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근로인민대중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보다 문명한 로동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사회주의로동제도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 위대한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가 창조되였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다.

보고회는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참가자들의 충정의 열의가 끓어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 로동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자

## 중앙보고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로동법령을 발포하신 7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지금 전체 인민들과 근로자들은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로동제도를 세워주시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습니다.

로동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대한 력사적과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생활에서 로동이 차지하는 위치와 로동문제해결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습니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몸소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시여 로동문제해결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로동생활을 보장해주는것을 민주주의혁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가장 지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로동제도를 수립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해온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로동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손수 로동법령초안을 한조항한조항 완성하시였으며 로동법령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제반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주체35(1946)년 6월 24일 력사적인 로동법령을 발포하시였습니다.

로동법령의 발포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노예로동제의 철폐와 참다운 인민적인 로동제도의 확립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동문제에 관한 주체적인 사상이 구현된 로동법령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독창적인 로동강령이며 근로자들의 로동생활문제를 새롭게 규제한 민주주의적법령이였습니다.

력사적인 로동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로동의 주인이 되여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물질문화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습니다.

로동법령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로동제도가 확립되고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8시간로동제와 공정한 로동임금제, 유급휴가제가 적용되여 로동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우리 근로자들은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사회보험제의 혜택까지 받으며 안전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일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로동법령의 실시는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었으며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습니다.

로동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세워진 인민적인 로동제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과시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법령을 실시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면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로동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조직전개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확립하고 로동법령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중요산업이 국유화되고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데 맞게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리용하는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뚜렷이 밝혀주시여 민주주의적인 로동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게 하시였습니다.

로동법령은 그것이 규제하고있는 혁명적원칙들과 심오한 내용으로 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뿐아니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문제해결에서 새롭게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로동제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작성발표하심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생활분야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주체의 로동법전이며 로동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환히 밝힌 과학적인 로동헌장입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로동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아져 혁명과 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이 창조되고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벌써 《로동행정사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로동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우리 식 사회주의로동제도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고전적로작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시고 온 사회에 혁명적로동생활기풍을 세우며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행정사업이 로동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로자들을 주체의 로동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시고 로동에 대한 교양을 충실성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깊이있게 진행하며 개인주의적인 로동관점과 태도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철주야의 선군장정의 길에서 수많은 공장, 기업소, 농촌들을 몸소 찾으시여 로력관리질서를 세우고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긴장한 로력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로자들을 한 직종에 오래동안 고착시켜 그들이 맡은 일에 정통하고 기술기능을 부단히 숙련해나가게 하는것과 함께 기능공학교의 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기능로력후비양성사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사회주의원칙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물질적자극을 옳게 적용하게 하시여 평균주의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로동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응당한 평가를 받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기 위하여 수많은 제대군인들을 인민경제중요부문에 보내도록 하시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농촌지원전투를 힘있게 벌리게 하시였으며 아름답고 경치좋은 곳마다에 휴양소와 정양소들을 수많이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제도를 마련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로동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강국건설사와 더불어 천세만세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끝없이 빛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시여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형, 로력절약형으로 확고히 전환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도록 하시였으며 로력조직과 로력관리, 로동에 의한 분배와 로동생활조건보장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인민적인 로동시책들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친어버이심정으로 평범한 로동자들의 가정도 찾아주시고 공장과 일터를 찾으시여서는 근로자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며 그들을 한품에 안아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이르는 곳마다에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 농민들을 위한 훌륭한 살림집과 함숙, 대중봉사기지들을 일떠세워주시며 더 좋은 로동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로력적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토록 아끼고 사랑하신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우리 근로자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서 주체조선의 근로자들은 열렬한 애국자, 영웅적위훈의 창조자, 만리마기수들로 자라나 세기를 주름잡는 비약과 혁신의 나래를 펼쳐가고있습니다.

로동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동제도로서의 우월성과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거대한 전변을 가져왔습니다.

로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사회주의로동원칙이 전면적으로 실현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에 대한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청산되고 로동이 물질문화적재부의 원천으로,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창조적로동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의 존엄과 지위는 돈이나 재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실한 로동에 의하여 규정되고있으며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인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은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주인, 로동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을 인생의 영광으로, 삶의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주체의 로동관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로동생활기풍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수천척지하막장과 사회주의협동천야로, 외진 농대섬과 산으로, 바다로 달려나가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치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자기의 리상과 값높은 삶을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절히 옹호고수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빛나게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뼈속깊이 체득하며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오직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곧바로 가는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입니다.

우리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당의 전략적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혁명적로동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한 당의 사상과 정책을 틀어쥐고 근로자들속에 주체의 로동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로동생활에서 나타나는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과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로동법과 로동규률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로동생활이 정규화, 규범화되고 전반적생산공정이 자동화, 무인화된 로력절약형의 전형단위들을 창조하며 로력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것은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제기되고있는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고 생산을 끊임없는 장성에로 추동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입니다.

경제지도일군들과 로동행정일군들은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로동량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며 근로자들에게 실지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로동보수가 정확히 차례지도록 로동보수지불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로동생활조건과 물질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사회보험제,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와 같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합니다.

경제지도일군들과 로동행정일군들은 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의 로동정책에 기초하여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로동행정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로동행정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당의 로동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에서 로동행정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로동행정사업의 모든 공정과 제기들에서 정치사업, 로동선전사업을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리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로동행정사업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신심에 넘쳐 참다운 애국열의와 로력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통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며 기적과 위훈을 펼친 전세대 근로자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이어 통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에 펏펏이 대답하며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질풍노도와 같이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불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 반제반미계급교양의 거점으로 새로 꾸려진

# 중앙계급교양관 개관식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미제와 일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는 속에 중앙계급교양관이 새로 꾸려져 개관되였다.

연 건축면적이 3 910㎡이고 전시면적이 3 200㎡인 중앙계급교양관의 전시실들에는 미제와 일제, 남조선괴뢰들, 계급적원쑤들의 아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반제계급의식을 높여주는 1 670여점의 사진자료와 반경화, 판상, 조각을 비롯한 100여점의 미술작품, 3 000여점의 유물 및 증거물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전시되여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명도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지구에 중앙계급교양관이 일떠선것은 우리 당의 령도따라 반제계급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의 과시로 된다.

반제반미계급교양의 거점으로 새로 꾸려진 중앙계급교양관 개관식이 24일에 진행되였다.

김기남동지, 김수길동지와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시급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건설자들, 공로자들, 중앙계급교양관 졸업원들, 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가 개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파감히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보통강반에 새로 꾸린 중앙계급교양관을 개관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혁명의 승패와 조국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중앙계급교양관을 더 잘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할 중앙계급교양관의 위치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있는 명당자리에 잡아주시고 설계와 형성안으로부터 전시형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며 교양관이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종합적인 거점으로 일떠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중앙계급교양관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계급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며 반제계급교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또 하나의 거점이 마련되게 되였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미제와 일제,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적만행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는 력사의 고발장이며 철의 윤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견결한 혁명가, 투사로 준비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계급교양을 당사상교양사업의 주요방향으로, 5대교양의 중요내용의 하나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것처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 우리 인민의 자주적삶과 천지원쑤들을 기어이 복수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적개심의 발원지이다.

교양관의 전시실들에는 미제와 일제가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감행한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범죄적만행들, 남조선괴뢰들과 계급적원쑤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뛴 용납못할 죄악을 발가놓는 수천점의 유물과 증거물들, 사진자료와 미술작품들이 진렬전시되여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참관자들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이며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 흡혈귀들과 맞서 싸우고있는가 하는것을 심장깊이 새아박고 피맺힌 원한을 피로써 반드시 풀고야말 계급의 무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게 될것이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당의 의도를 받들고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일떠선 교양거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아안은 류경건설관리국 건설자들은 파감한 돌격전으로 공사를 힘있게 내밀면서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 교양관 건축공사를 비롯한 건설과제를 훌륭히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안의 구역들, 각급 미술창작단위들에서는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중앙계급교양관을 당의 의도에 맞게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진렬전시과제와 미술작품창작과제를 제때에 수행하였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비수를 박는 심정으로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린 건설자들과 공사를 물심량면으로 성의껏 지원한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로력적위훈에 의하여 우리의 계급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데 이바지하는 교양거점이 일떠서게 되였다.

연설자는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으로 무장한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키워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승리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습니다.》**

연설자는 혁명의 불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을 가로막아보려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이 날로 악랄해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가 복잡하고 계급투쟁이 더욱 격렬하게 벌어질수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우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전당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도높이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중앙계급교양관의 일군들과 강사, 졸업원들은 교양관관리운영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 해나감으로써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계급적량식을 안겨주고 그들모두를 반미대결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중앙계급교양관을 비롯한 계급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투쟁의 행수들로 준비시키며 특히 새 세대들이 계급투쟁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은 투철한 주적관과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원쑤들에게 복수의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종합해설을 듣고 새로 꾸려진 중앙계급교양관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특사일행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4일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특사와 일행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4일 윤성진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장과 최권일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뜨거운 민족애와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으로 이역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며 홍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 공화국정부에서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특사를 위하여

##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특사를 위하여 24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특사인 네룸보 난디 은다이트와 부수상 겸 국제관계 및 협조상과 일행이 초대되였다.

리용호외무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리용호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특사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두 나라 친선관계의 력사적전통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적독립을 위한 나미비아인민의 피어린 투쟁이 승리를 이룩할수 있도록 커다란 로고를 바치시며 온갖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나미비아와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특사의 이번 방문이 쌍무관계발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네룸보 난디 은다이트와특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친선적이고 형제적인 조선을 방문한 자기들을 친절히 환대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의 각별한 관심속에 조선과 나미비아사이의 관계는 좋게 발전하여왔으며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각하의 보살피심속에 더욱 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은 나미비아의 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독립을 이룩한 후 제일 선참으로 외교관계를 맺어준 친선적이고 형제적인 나라이라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보다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나미비아공화국대통령 하게 게인고브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특사일행 도착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특사인 네룸보 난디 은다이트와 부수상 겸 국제관계 및 협조상과 일행이 2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신홍철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 국제빙상호케이련맹 위원장일행 도착

메네 파필 국제빙상호케이련맹 위원장과 일행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이 24일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평양시청년동맹 위원회 1비서 문철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는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의 가슴마다는 우리 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안겨준 미제침략자들을 족탕쳐버리고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땅찍의 의지와 적개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마수를 뻗쳐온 미제가 지난 세기 50년대에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집어삼키려고 전쟁의 불을 지르고 온 강토를 초토화하였으며 세균전과 화학전까지 벌려 수백만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데 대하여 폭로단죄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사지를 찢어죽이고 목매달아죽이고 처녀민청위원장의 정수리에 대못을 박아 무참히 학살한 미제의 죄행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였어도 미제의 침략적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제아무리 날뛰여도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고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으로 만장약된 우리 인민과 청년전위들이 있는 한 원쑤들에게 차례질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오늘 우리 청년들앞에는 당의 선군정치를 총직하게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학생들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에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의 승리가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이시고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날로 악랄해지는 미제와 박근혜괴뢰역적패당을 족탕쳐버리는 심정으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영웅청년신화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피타는 탐구와 정열을 바쳐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움으로써 나라의 국방력강화와 경제강국건설에 한몫 단단히 하는 유능한 혁명인재, 과학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위업 완성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청년전위의 기개와 슬기를 남김없이 떨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주체조선의 국방력을 힘있게 과시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성공소식이 세상을 진감시키고있는 가운데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문제시해보려는 온당치 못한 행위들이 나타나고있다.

지난 23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의 전략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들며 《규탄》이요, 《제재결의》리행이요 하는 공보문이 발표되였다.

공정성이 완전히 결여되고 이중기준이 적용된 유엔안보리사회의 공보문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주범인 미국이 만들어낸 조작품에 불과한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전면배격한다.

우리의 성공적인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우리 공화국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이다.

그런데 유엔안보리사회가 그 무슨 공보문이라는것을 만들어내고 대조선《제재결의》리행을 운운한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천만부당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우리에 대한 《제재결의》자체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강권의 산물이다.

유엔사무국도 그 법률적기초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있다.

미국이야말로 남조선에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는 장본인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에 대응한 강력한 공격수단을 갖추어나가는 것은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로 된다.

우리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을 수호하는것은 그 누구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될수 없다.

미국은 우리의 군사력강화에 대해 시비질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여 핵보유국이 되고 전쟁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게 되였는가를 돌이켜보고 자기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해 반성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미국의 전략적인 오음와 경솔한 행동이 지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지금 통제불가능한 극단상황으로 계속 치닫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압박책동이 계속되는 한 그에 따른 우리 식의 자위적대응조치들도 련속적으로 취해지게 될것이다.

## 미제의 살인만행을 폭로하는 수백발의 각종 폭발물 발견

### 함경남도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살인만행을 보여주는 수많은 폭발물들이 계속 발견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수백발의 각종 폭발물들이 도안의 여러곳에서 련이어 드러나 사람들의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4월말부터 5월까지 미제공중비적들이 마구 뿌린 250kg, 100kg, 50kg짜리 폭탄이 락원군과 수동구, 장진군, 신포시의 아산기슭 발머리와 나무심기전투현장, 포구의 모래밭에서 흉물스러운 동체를 드러냈다.

허천군에서는 살림집터밭들에서 수류탄과 수십발의 총탄들이, 단천시 룡연협동농장 남새밭에서는 포탄과 총탄들이 발견되였다.

또한 6월에도 함흥시 래일구 염소인공풀판에서 수십발의 포탄과 100여발의 총탄들이 발견된것을 비롯하여 도안의 여러곳에서 미제가 이 땅에서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폭로하는 증거물들이 드러나고있다.

장장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으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참화를 들씌운 저주로운 양키들이 뿌려놓은 폭발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한 상태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있다.

우리의 평화로운 도시와 마을들을 재더미로 만들고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미제의 죄행을 폭로하는 력사의 증거물들은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말 원쑤격멸의 의지를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보천보배불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다음주에도 계속된다.

26일(일요일) 오전 기관차체육단에서 평양체육단, 기관차체육단, 성천강체육단, 김형직사범대학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에술체조 1급 결승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시산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축구 1급 남, 녀경기가 결속된다.

26일에 소백수림과 월미도림사이의 녀자결승경기가 있게 된다. 이날 압록강림과 4.25림은 3, 4위를 가르는 경기를 한다.

한편 경공업성림과 4.25림사이의 남자 조별련맹전에서 1, 2위를 한 림들의 대각경기가, 30일에는 결승경기가 진행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할 불굴의 신념

## 렬사들의 웨침—목숨보다 귀중한 조국 끝까지 지키라!

###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50년대 용사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한 위대한 시대정신이며 천만군민에게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선군조선의 넋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서있다.

조용히 귀기울이느라면 서슬푸른 총창을 비껴들고 남으로, 남으로 노도쳐가던 인민군용사들의 발구름소리와 포연서린 하늘가에 울려퍼지던 《조국보위의 노래》의 힘찬 선률이 들려오는듯싶다. 수류탄묶음을 가슴에 안고 적땅크를 향해 육박해가며 녀전사가 남긴 웨침도, 고지에 홀로 남았지만 적들에게 심대한 불줄기를 멈추지 않던 용사의 그 키관단총소리도 여기서는 다 들을수 있다.

여기서는 볼수 있다. 조국을 지켜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영웅전사들을 한품에 안아 영생의 언덕에 세워준 위대한 우리 당의 그 자애깊은 손길을.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전에 용약 떨쳐나선 유명무명의 렬사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이 깃들어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그 사랑이 있어 560여명의 인민군렬사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인민의 가슴에 새겨질수 있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참관자들과 함께 영웅전사들의 비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처음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구분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은 장태화영웅입니다.》 강사의 말이였다.

장태화영웅, 영웅의 그 이름을 우리 어찌 모를수 있으랴.

장태화영웅은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 문산 북쪽 64고지전투에서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았다.

불뿜는 적화점, 그를 향해 불사신처럼 일어선 영웅전사의 모습이 우리의 눈가에 비껴들었다.

그는 과연 마지막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던가.

불뿜는 원쑤의 불구멍앞에서 그에게는 천만가지 생각이 번개쳤으리라. 고향집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보고싶었으리라. 그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시고 베풀어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오래도록 살고싶었다. 장태화영웅은 바로 그 행복을 위해 피끓는 청춘을 바치리라 결심했다.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한목숨바친 혁명전사의 삶이야말로 가장 값있고 보람차며 영원하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때문이였다.

전우들은 장태화영웅이 목숨바쳐 열어놓은 돌격로를 따라 단숨에 64고지를 점령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첫 육탄영웅의 위를 이어 자기의 청춘을 바쳐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은 렬사들의 이름 오늘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김인태, 신기철, 주상하, 박석봉…

영웅의 묘비앞에 한송이 또 한송이 꽃들이 놓인다. 그 꽃송이마다에는 조국을 지켜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영웅전사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영웅의 고귀한 넋을 이어 결전의 시각이 닥쳐온다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조국의 돌격로를 열어나갈 맹세가 담겨있는것 아니랴.

우리의 걸음은 사진없는 한 영웅의 묘비앞에 이르렀다.

《희정웅동지입니다. 가족은 물론 전우들도 모두 희생되다보니 그는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강사의 이야기는 뜨거움에 젖어있었다. 우리의 눈시울도 젖어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심금을 더욱 울린것은 마지막 한명의 전사의 위훈까지도 헤아려 영생의 언덕에 세워준 우리 당의 위대한 그 사랑이였다.

한치한치의 땅을 지켜 피끓는 가슴으로 화점을 막고 육탄으로 적기와 땅크를 맞받아나간 영웅한 전화의 영웅세대가 지닌 조국수호정신이 있었기에 로동당의 손길아래 복락을 누려갈 후손만대의 삶의 보금자리가 지켜진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바칠 결사의 각오로 맥동치는 열혈의 심장의 무게가 곧 인생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수많은 렬사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이 언덕은 우리가 한생을 바쳐 오르고올라야 할 인생의 높이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내리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저 언덕에서 인민군렬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있는듯싶었다.

준엄한 시각이 닥쳐온다면 목숨바쳐 조국을 사수하라고.

글 신 철
사진 본사기자 한 광 명

## 행복의 동산에서 맞은 6.25

중구역 련화2동에서 살고있는 최우진전쟁로병이 새 세대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전쟁시기이야기가운데는 전쟁이 일어난 6.25에 대한 회상담도 있다.

불타는 락동강을 헤쳐온 로병은 어찌하여 하많은 무훈담보다 66년전 6월 25일의 이야기를 더 잊지 못해하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자신들에게 진정한 삶과 행복을 가져다준 공화국정권을 보위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습니다.》

우리와 만났을 때에도 로병은 그날의 추억을 먼저 꺼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돌이켜볼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것은 내 고향뒤산의 푸르른 솔밭입니다.》

주체39(1950)년 6월 25일 아침 동산배낭을 메고 짐토방을 내리는 정주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 최우진의 마음은 흰구름마냥 둥둥 떠올랐다. 그는 이날 학급동무들과 함께 고향뒤산에 올라 자연관찰도 하고 마을앞을 흐르는 달래천가에서 미역도 감자고 약속했던것이다. 동구길에 나섰는데 동무들이 달려왔다.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뒤산에 오른 그들을 푸르른 솔밭이 반겨맞았다. 그들이 제각기 산관을 오르내리며 식물채집도 하고 한자리에 모여 시험공부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산기슭에서 누군가 뛰여올라왔다. 이른아침 어머니와 함께 논김매러 나갔던 우진의 누이였다.

《얘들아, 전쟁이다!》

머리를 맞대고 수학문제를 푸느라 열을 올리던 우진과 학급동무들은 무슨 소리인가 하여 땔감게 달아오른 누나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리승만괴뢰도당이 쳐들어왔다지 않니!》

누나가 애타게 곱씹어서야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다시 온몸을 휩싸는 당황함!

(전쟁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가?)

당장 학교에 가서 사실여부를 알아보아야겠다는데로 생각이 모아졌다. 동산배낭이고 뭐고 다 팽개친 그들은 읍에 있는 학교까지 10리나 되는 길을 단숨에 달려갔다.

학교운동장에는 벌써 200명가량의 학생들이 모여 웅성거리고있었다. 그들앞에 교장선생이 나섰다.

《학생동무들, 미국놈들이 리승만괴뢰도당을 사촉하여 오늘새벽에 38°선을 넘어섬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공장과 마을, 학교들이 불타고있습니다. 침략자들이 휘몰아온 전쟁의 불구름은 우리의 정든 교정에도 덮쳐들려 하고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으로 꽃펴난 새 조선의 희망과 행복을 무참히 짓밟으려는 침략자들을 우리가 용서할수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의 절절한 호소에 학생들은 《침략자들을 때려부시자!》, 《조국의 촌토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웨침으로 화답하였다.

운동장은 삽시에 침략자들을 단죄하는 성토모임, 인민군대환원궐기모임장소로 화하였다. 우진과 학급동무들도 인민군대입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다음날 정주고급중학교의 수백명 학생들은 인민군대탄원생대오를 꾸고 도소재지에 자리잡은 군사동원부로 찾아갔다.…

포연서린 전호가에서 관가리결진의 시각을 맞이할 때면 고향뒤산의 푸르른 솔밭아래 무르녹던 그날의 행복의 화폭이 눈앞에 펼쳐져 증오는 더욱 세차게 불타오르고 원쑤격멸의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는 로병의 이야기.

이것이 어찌 최우진전쟁로병 한사람의 체험만이겠는가. 1950년대의 조국수호자들 누구나 그와 같이 자기들의 삶이 아름답게 꽃피는 공장과 농촌, 학교와 마을, 료양소와 휴양지를 비롯한 수많은 행복의 동산에서 불타는 전호로 달려간 사람들이였다.

미제가 불의의 침공으로 저들의 야망을 손쉽게 실현할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오산이다.

지난 전쟁 3년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전쟁발발당시에 극과 극의 대조로 체험한 자기나름의 행복의 동산들이 싹 차있었다. 그 행복의 동산들이 전체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굳함없는 신념의 산악으로 억세게 자리잡았을진대 그들이 설사 목숨을 바칠지언정 조국의 고지를 어찌 한치인들 내놓을수 있었으랴.

전쟁발발당시를 돌이켜보는 로병의 회상담이 주는 여운은 이렇듯 컸다.

본사기자 허 명 숙

수 필

## 66년전의 력사적화폭앞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속에서 자기가 세운 새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웠습니다.》

한장의 사진이 우리를 잊을수 없는 전화의 언덕에 세워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전선으로 탄원해나선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력사적화폭이다.

으스러지게 틀어쥔 주먹, 번쩍이는 눈빛들에서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조국의 촌토를 목숨으로 지킬 맹세가 어려온다.

사진속에 애어린 청년들의 모습도 있다. 그들의 앞에는 생사를 판가름하는 격전장, 그러나 추호의 동요나 주저도 모르는 강인담대한 모습들이다.

저 로동청년은 불뿜는 적화점을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연 그 돌격용사가 아닌지.

저 나어린 청년은 단신으로 고지를 지켜낸 불사신같은 그 영웅전사는 아닌지.

피수복영웅이 심장으로 남긴 한원서의 글발들이 어려온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란 해방된 조선청년이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장군님의 명령대로 미제강도놈들의 침략로부터 행복한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갈것을 피끓는 조선청년의 심장으로 탄원한다.…》

바로 사진속의 청년들의 가슴에도 그런 탄원서가 간직되여있으리라.

해방전 이름석자도 없이 지주집머슴으로, 아이보개로 불우하게 살아오던 인생들이였다. 나라없는 설움에 개만도 못한 삶을 저주하며 죽지 못해 살아온 어제날의 천덕꾸러기들이다. 위대한 수령님품속에서 행복했던 5년간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어, 다시는 그 보금자리를 잃을수가 없어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 용약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선것이다.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60여년, 우리는 전쟁을 영화나 책으로만 보아왔고 유적과 유물로만 눈에 새겨온 세대이다. 그러나 1950년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시공간적인 개념으로는 가늠할수도 없는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이 있다. 조국앞에 엄중한 정세가 닥쳐올 때마다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수십년전 그때처럼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하는 모임이 열리였고 수많은 청년들이 《전선에서 만나자!》고 웨치며 멀적의 기세높이 전선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결코 수십년전 력사의 한순간을 담고있는 한장의 사진으로만 볼수 없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를 노리는 원쑤들이 있는 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멸쳐질 산 화폭이며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이 없을 우리의 맹세이고 우리의 신념이며 우리의 의지이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끊없이 흐르는 전선탄원의 물결은 다름아닌 그 신념과 의지로 움직이는 철의 대오, 로화에 끓는 강도, 험한 전멸길도 넘고 헤쳐갈 불패의 대오인것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 되살아난 731부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의 력사는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준 죄악의 력사로 얼룩져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일본은 미제의 괴뢰은 손발이 되여 우리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수없이 감행하였다.

놈들은 저들의 전멸토를 미제의 침략전쟁수행의 전초기지로 통채로 내맡기고 막대한 군수품들과 군수기재들을 생산보장해주었으며 군함과 일반함선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배들을 기뢰제거, 물길안내, 수송 등 여러 작전에 직접 동원시켰다. 일본의 한 신문이 인천상륙작전에만도 50여척의 함선이 가담하고 거기에 복무한 일본인승무원이 2000명이나 되였다고 폭로한것은 한가지 실례에 불과하였다.

전쟁초기에 벌써 2만 5000명을 조선전선에 투입시키고 1951년 2월에는 14만여명을 조선전선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더 징집한 일본반동들의 죄악의 력사를 파헤치자면 끝이 없다.

그 갈피에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영영 사라진것으로 알려졌던 731부대의 세균전범자들이 미제의 세균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의 흔적도 있다. 인간살륙으로 악명떨친 731부대는 일제가 극비밀리에 조직한 살인전문부대였다.

세균 및 화학무기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사》, 《의사》의 탈을 쓴 3천여명의 731부대의 살인귀들은 한달에 잘해 파균을 한1가량이나 배양하였으며 페스트균폐해용의 벼룩만 하여도 4만 5천개의 사육기에서 수천만마리를 길러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알아내기 위하여 1937년부터 동물대신 《통나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실험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렇게 인류앞에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마땅히 처단되였어야 했을 전범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더러운 잔명을 보존하였다. 아시아에 대한 《제패권》을 노린 미제는 아시아인들을 대량적으로 참살하기 위해 연구해온 731부대의 세균, 독가스자료가 절실히 필요했던것이다.

일제가 360여만명을 상대로 감행한 8000여건의 세균, 독가스실험자료들과 각종 참고자료들, 사진자료, 환등자료, 세균탄설계도면, 일본에 있는 세균전연구기관들과 설비들을 모두 넘겨받은 미제는 그것을 저들의 세균무기개발에 적극 리용하였다. 그 첫 적용대상으로 된것이 다름아닌 조선민족이였다.

조선전쟁에 파견된 미제화학부대의 미군방조자들중에 지난날 인류앞에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세균전전범자들이 활동하고있었다는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이놈들은 1951년 12월과 1952년에 3차례에 걸쳐 세균전물자와 설비들을 직접 남조선에 실고와 세균전만행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전쟁시기 미제는 1952년 1월초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수백대의 비행기를 공화국북반부의 169개 지역에 동원하여 연 804차례에 걸쳐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한저균과 장티브스균, 페스트균에 감염된 곤충과 조개류, 새털들이 들어있는 폭탄들이 투하되여 평화적주민들에게 무서운 재난을 들씌운 세균전의 흑막속에는 미제와 결탁한 731부대의 검은 마수도 뻗쳐있었다.

조국땅 곳곳에서는 아직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균전에 의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령혼들의 피의 절규가 들려오고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모든것이 변했다.

허나 우리 인민은 6.25와 함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일본이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들씌운 재난과 불행을 똑똑히 기억하고있으며 대를 두고 결산할 불같은 의지에 넘쳐있다.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다.

본사기자

## 전쟁과 더불어 시작된 전인민적애국운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시기에 우리 인민들은 후방을 튼튼히 지키는 한편 전선에 나가 싸우는 아들딸들을 생각하며 전시생산과 전선원호사업을 적극 벌려 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얼마전 본사편집국으로 만경대구역에서 사는 한 녀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 당시 우리 인민의 전인민적사상감정과 전선원호열기를 보여준 한편의 기사를 보고 추억이 깊어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전쟁이 일어난 그해 저는 철부지였습니다. 하지만 녀맹일군이였던 저의 어머니가 전선원호궐기모임에 참가한 수많은 녀성들앞에서 군기기금헌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던 모습도, 남녀로소모두가 전선원호사업을 힘있게 벌리던 일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추억은 비단 전선에서 싸운 로병들에게만 간직되여있지 않았다. 철부지나이에 전쟁을 겪은 평범한 녀인의 가슴속에도 60여년전의 6월은 이렇듯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그 녀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조국해방전쟁사에 기록된 전선원호를 위한 전인민적투쟁의 폐지를 다시금 펼치게 하였다.

전쟁의 첫 시기 가장 광범히 벌어진 전선원호사업은 군기기금헌납운동이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전선원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싸우는 전선에 보낼 비행기, 땅크, 함선을 마련하기 위한 군기기금헌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로동자와 농민, 청년학생들은 물론 애국적인 상공인들과 나어린 소년들도 이 운동에 적극 합세하였다. 탕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충정과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이 스며있는 비행기와 땅크, 함선들이 《민청호》, 《대학생호》, 《녀성호》, 《소년호》 등의 이름을 빛내이며 전선으로, 전선으로 떠나갔다.

전쟁개시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에 헌납된 군기기금총액은 1억 7449만 7000여원, 8월말까지는 무려 4억원이상에 달하였다. 후방인민들의 지성어린 위문품과 위문편지들도 싸우는 교지의 인민군용사들에게 멀적의 의지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1950년 6월 30일까지 평양시인민들이 10만여점의 위문품을 전선에 보냈으며 함경북도에서는 각종 위문품 6만여점과 위문편지 2000여통을, 황해도인민들은 24만 4000여점의 각종 위문품과 11만 4000여통의 위문편지를 인민군대에 보내였다.

농민들은 전선원호미헌납운동에 떨쳐나섰다.

원쑤놈들의 폭격속에서도 굴함없이 농사를 지어 례년에 보기 드문 풍작을 이룩한 농민들은 한알의 쌀도 허실함이 없이 모조리 거두어들여 고지의 전사들에게 보내주었다. 전선원호미헌납운동의 불길속에 다수확농민들의 대렬이 늘어났고 농민들속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이 더욱더 강화되였다.

《후방농민들의 전선원호미헌납운동은 화선에서 투쟁하는 나에게 더욱더 승리의 신심을 앙양시켜줍니다. 나는 원쑤들을 한놈이라도 더 많이 잡아서 이 전투적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당시 한 인민군전사가 고향에 보낸 이 편지의 글줄에서도 농민들의 전선원호미헌납운동이 싸우는 전선용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안겨주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미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에 전체 인민이 광범한 전선원호로 대답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 그 품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금같이 흘러간 5년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었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어언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가렬한 전화의 그날에 시작된 전선원호의 바통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면면히 이어지고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선 그 위대한 힘을 꺾을자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타오른 전선원호의 불길이 새겨주는 진리이다.

리 신 향

## 실화 화선수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들은 보람차고도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참된 인간관계, 동지적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게 됩니다.》

저녁어스름이 소한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전선지대를 슬그머니 감싸안았다. 감시소에서 직정감시를 진행하던 정찰조장 전재정은 교대성원에게 제기된 정황들을 설명해주고는 반토굴병실로 향했다. 그날따라 직진지에 배치된 대구경원거리포들도 휘일인지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어깨에 쌓인 눈을 털며 병실로 들어서는 전재정에게 취사원이 다가왔다.

《우리 정찰조에 실습생들이 왔습니다.》

취사원이 턱짓으로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니 만피등잔불빛에 10여명의 군인들이 보이였다. 그들속에 섞여있던 군판이 다가오더니 전선실습을 나왔다고 알려주었다. 전재정은 련대지휘부에 갔을 때 후방에 있던 부대가 이동해오는것과 관련하여 전선부대들에서 실습을 조직한다고 알려주던 생각이 났다. 오느라 수고가 많았겠다고 인사말을 건넨 전재정은 그들을 식락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실습생들과 마주앉아 식사를 하던 그는 등잔불너머에서 지꿎게 자기를 살펴보는 눈길들을 감촉했다. 전선군인에 대한 일종의 호기심때문일것이라고 어림짐작한 전재정은 식사를 끝낸 그들에게 점잖게 한마디 했다.

《교지생활인지라 불편한 점이 많소. 그럭저럭 리해하고 오늘밤은 푹 쉬시오.》

휘사원을 찾아 실습생들에게 더운물을 보장하도록 이른 그는 다시 감시소로 올라갔다.

다음날 아침 감시소에서 내려오던 전재정은 급히 달려오는 두 전사들과 맞았다.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분명 학창시절에 물리와 체육과목을 배워준 스승들이였다.

《재정이 아니야? 옳구만. 재정이!…》

《선생님!》

서로 부둥켜안고 한덩어리로 돌아가던 그들은 눈한에 퍼더버리고앉았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전재정은 어안이 벙벙한 속에서 느닷없이 물었다.

《조국을 지켜야지! 그러니 어제날의 제자가 오늘은 우리 상판이 되였구만.》

체육교원이였던 양진우가 의미깊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였다.

《미국놈들과 싸우느라 고생이 많았겠소. 앞으로 많이 배워주오.》

물리교원이였던 정만일이 뜻있는 미소를 지으며 전재정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어떻게 선생님들을…》

그것은 전쟁이라는 비구으로부터 엮어진 극적인 인간련계였다.

실습생들과 함께 감시소에 오른 전재정은 아군전방의 지형지물들과 방위목표들, 적들의 배치와 화력기재들의 위치, 그 약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실습은 각이한 정황에서의 전투동작과 장애물극복을 기본으로 진행하였다.

전재정은 실습생들이 정찰조원들과 똑같이 훈련하도록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그것은 실습생들이 자기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알고 짧은 시간에 훈련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있었다.

사격과 격술, 지뢰해제와 철조망극복, 목표물접근과 습격, 철수…

부단한 숙련과 반복동작이 계속되였다.

젊은 실습생들은 그런대로 기준시간에 도달했지만 나이가 많은 어제날의 두 스승만은 무척 따라서기 힘겨워하였다. 그때마다 전재정의 입에서는 《다시!》라는 말이 튀여나왔고 옛 스승들은 출발제선으로 달려가군 했다. 전재정은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달리는 할수 없습니다.)

학습에서는 다시라는 말이 통할수 있어도 생사를 판가름하는 전투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기에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지휘관과 병사라는 냉철한 사고만이 전재정의 모든 감성을 꾹 짓누르고있었다.

맹훈련의 날과 달이 흘러 실습생들은 훈련과정안을 전부 마치였다. 실습은 적들에 대한 습격전투로 총화되였다.

습격1조의 임무는 앞고지에 있는 적의 중기화점을 까부시는것이였고 습격2조의 임무는 무반동포진지를 날려보내는것이였다.

1조에는 정만일이, 2조에는 양진우가 배속되였다.

1조와 함께 앞고지 좌측에 있는 깔비랑을 극복한 전재정은 정만일에게 놈들의 중기화점을 까부실것을 명령했다. 수류탄으로 적중기화점을 단숨에 날려보낸 정만일은 적들의 중기까지 로획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로부터 며칠후 전재정은 양진우가 속한 2조와 함께 적들의 지뢰원과 철조망을 극복하고 포진지를 습격하였다. 고지후면에 있는 적병영에 은밀히 접근한 양진우는 기관단총과 수류탄으로 10여명의 적들을 소멸하고 무반동포들을 완전파괴하였다.

실습을 마친 실습생들이 부대로 돌아가는 날이였다.

떠나기에 앞서 양진우와 정만일이 전재정을 찾아왔다. 그들은 따스한 품별이 내려쪼이는 너럭바위우에 무릎을 마주하고 앉았다.

《제가 그동안 선생님들에게 너무…》

전재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진우와 정만일이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우린 조장동지에게서 참으로 큰것을 배웠습니다. 당과 조국앞에 지닌 군인의 량심과 의무에 대한 수업을 받았다고 해야 할지. …》

《우리가 교정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쳤다면 조장동지는 화선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병사만이 조국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질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굳게 손을 마주잡고 뜨거운 약속을 나누었다.

《승리의 날 열병광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옛 스승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전재정은 오래도록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로부터 1년 수개월후에 평양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뜻깊은 열병광장에서 전재정은 양진우와 감격적으로 상봉하였다. 양진우의 앞가슴에는 훈장들이 번쩍이고있었다.

《조장동지!》

《선생님!》

그날 양진우는 정만일이 교지습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알려주었다.

전재정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남녀하늘가를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화선수업의 나날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승리의 날 열병광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듯 뜨거운 약속을 나누었던 옛 스승, 그가 전사했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이 저주로운 미국놈들아. … 아, 선생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양진우도 군인들도 군모를 벗어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였다.

* *

문천시에 살고있는 전재정전쟁로병은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결사수호정신을 깊이 심어주며 오늘도 화선수업의 길을 이어가고있다.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모조리 소탕하는 그날까지 전선용사들의 화선수업은 끝나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 제2의 조선전쟁도발의 종착점은 미국의 종국적멸망이다

미제가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로 들끓던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운 때로부터 66년이 되었다.

오늘 우리 조국은 폐허로 되였던 참혹한 모습의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희한하게 번모되였다. 도시들에는 조선의 특색을 자랑하는 현대적건축물들이 꽉 들어차고 농촌들에는 21세기에 어울리는 리상촌들이 금모있게 펼쳐졌다.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설수 없다고 하던 우리 나라가 온 세계의 찬탄과 부러움을 자아내는 사회주의문명국가, 인민의 락원으로 천지개벽되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하였어도 미제가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 1950년 6월 25일을 절대로 잊지 않고있다.

그날은 바로 정녕한 일요일이였다. 공장과 토지의 주인이 된 기쁨을 안고 땀흘리며 성수가 나서 일한 우리의 근면하고 순박한 근로자들이 피곤을 풀며 단잠에 들었던 이른새벽에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괴뢰도당은 끝끝내 조선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해나섰다.

왜 일요일에 전쟁을 도발하였는가.

당시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이렇게 실토하였다.

《우리가 왜 25일을 택하게 되였는가? 여기에 심중한 의도가 있다. 25일은 일요일이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했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았다는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미제는 이처럼 전쟁도발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교활하게도 일요일을 총공격개시의 날로 정하였다.

세계를 기만하고 침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요일 새벽에 전쟁을 도발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흔히 쓰군 하는 상투적수법들중의 하나이다. 파쑈도이췰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을 이전 쏘련경내에로 확대하기 위해 불의의 침공을 개시한것도 1941년 6월 22일 일요일 이른새벽이였고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할 목적으로 진주만공격을 기습적으로 들이댄것도 1941년 12월 8일 일요일 새벽이였다. 미국 역시 일요일 새벽에 조선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제국주의의 고유한 침략적본성과 교활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력사적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도발할 때 결코 광고하지 않으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불의에 침공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전부터 무장침공사건들을 련속적으로 일으킨 도발자이다.

1947년부터 미제는 남조선괴뢰군의 림전태세의 검증과 실전능력배양을 위하여 38° 선일대에서 무장침공사건들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남조선괴뢰군의 무장침공은 미제침략군고문들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감행되였다. 1947년에는 454차, 1948년에는 932차, 1949년에는 2 617차로 확대된 저들의 무장침습은 일정한 전투지역에 국한된 단순한 침범이 아니였다. 그것은 예비전쟁, 전면전쟁의 전주곡이였다.

당시 세계언론들은 38° 선일대에서 적들의 무장침공이 날로 증대되는 험악한 사태를 놓고 조선반도에서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있다고 정하였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다. 각종 무장침습을 통하여 괴뢰군이 전쟁준비를 완전히 갖추도록 한 미제는 《북진》전쟁도발에 대한 《전투명령 제29호》를 리승만괴뢰역도에게 하달하고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질렀던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적대되는 두 세력이 대치하고있는 접경지대에서 련속적으로 일어나는 무장도발사건들은 필연코 전면전쟁으로 넘어간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한것이 저들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이라고 계속 악랄하게 선전하고있다. 그리고 미군이 조선전쟁에 개입한것은 우리의 《남침》을 막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이야말로 강도가 강도야 한다는 격이라고 할수 있다.

상대국을 침략자, 범죄자로 매도하고 저들을 《평화수호자》로 분칠해나서는것은 제국주의침략자, 전쟁도발자들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상투적수법이다. 현세기의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도 미국이 《반테로》와 《대량살륙무기제거》라는 기만적인 구실을 내걸고 감행한것들이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일으킨 침략자, 전범자이다.

침략이란 외세가 다른 나라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그 나라의 령토, 령역을 침범하면서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것을 의미한다.

조선반도에서 외세는 명실공히 미군무력이다. 일제패망후 조선반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려는 우리 민족,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짓밟고 남조선에 저들무력을 들이민것자체가 남강도적인 강점이며 일종의 침략행위였다. 1945년 8월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과 쏘련의 대일전쟁참전에 의한 일본의 항복으로 하여 당황망조한 미제는 쏘미사이의 일본군무장해제분담계선을 북위 38° 선으로 함에 대한 분할점령안을 련합국들에 통보하고 남조선에 《무혈입성》하였다.

38° 선은 정치경제적령역을 가르는 경계선도, 적대되는 두 세력을 갈라놓는 군사적인 분계선도 되지 말았어야 하였다. 그런데 미제는 38° 선을 조선반도와 민족을 둘로 가르고 서로 대립하여 싸우게 하는 저주와 원한에 찬 군사분계선으로 만들어놓았다. 이러한것은 세계제패야망에 환장이 된 강절자, 침략자만이 할수 있는 극악한 범죄이다.

특히 미제가 리승만괴뢰역도를 내세워 전쟁의 불을 지피게 한 다음 저들의 각 군종, 병종무력을 들이밀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포격과 폭격을 들이대고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강점하려고 날뛴것은 조선인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무참하게 유린한 침략, 전범행위이다.

외세인 미제가 우리의 《도발》과 《침략》에 대해 떠들어대는것은 너무도 당치않다.

미제가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조선전쟁에 전면개입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저들을 《평화수호자》로 분칠할수 있는 명분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부터 미국무성의 직원들이 되근하지 못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할 《결의안》초안을 손에 쥐고 대기상태에 있었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리승만역도를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도록 하고 당일로 소집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에서 우리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를 조작해냈다. 7월 7일에 소집한 회의에서는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병하고 그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할데 대한 《결의》를 조작해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할 《결의안》을 미리 준비해놓고있은것이나 많은 추종국가들을 조선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미군주도의 《유엔군》을 조직한다는 《결의》를 조작해낸것이나 나타난 모든 사실은 미국이 《평화수호자》가 아니라 침략자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적지 않으며 따라서 유엔은 어러곳에 자기 이름으로 무력을 파견하고있다.

유엔의 이름으로 파견되는 무력은 마땅히 어느 일방의 편에 서서 타방을 말살하기 위한 전쟁에 참전하는것이 아니라 대결쌍방이 정화를 실현하도록 하고 그 리행정형을 감시, 통제하는 등 정화보장임무를 수행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조작한 《유엔군》은 철저히 리승만괴뢰역도의 편에 서서 우리의 정소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통채로 점령하는데 리용되였다.

유엔군은 국제군으로서 어느 한 국가의 지휘에 복종되지 말아야 한다. 유엔헌장 제46, 47조에 의하면 유엔군의 병력사용과 지휘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참모장 또는 그의 대표들로 구성된 군사참모위원회의 방조와 조언을 받아 안전보장리사회가 맡아수행하도록 되여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이 인정한것처럼 조선전쟁시기에 군사참모위원회는 운영되지도 않았으며 미제침략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뒤집어쓰자마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관할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였다.

어느모로 보나 조선전쟁에 뛰어든 《유엔군》은 《평화수호자》가 아니라 미제의 침략전쟁도구이며 미제는 흉악한 침략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유엔군이 아니라 유엔군의 탈을 쓴 미제침략자들과 전쟁을 하였다.

미제는 전쟁기간 공화국북반부에서 전대미문의 살륙과 파괴행위를 저지른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극악한 전범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군장성들이 수하장교들과 병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조선사람은 미국사람과는 다르다. 따라서 인정이란 있을수 없다. 무자비하고 또 무자비하라.》

이것이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가 1950년 9월 인천에 상륙하는 미제침략군에 내린 특별명령이였다.

미8군사령관 워커는 또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원하는것이며 또 〈유엔군〉명사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다.》

이에 따라 미제침략군은 발을 들어놓는 곳곳마다에서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야수적만행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총살, 타살, 교살, 생매장 등의 방법들을 써먹다 못해 쇠줄로 사람의 코와 귀를 꿰여 끌고다니다가 죽이고 눈알을 뽑고 젖가슴을 도려내여 죽였으며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 사람의 머리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끓는 물에 삶아죽였으며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등 짐승도 낯을 붉힐 잔인무도한 만행들을 례사롭게 감행하였다.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의 모든것을 파괴해놓았다. 평양시만 해도 인구 1인당 폭탄 1개이상, 북조선 전령토에서 보면 1㎢당 18개의 폭탄이 해당될만큼 초토화폭격을 들이댔다. 우리 나라는 미제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그처럼 흔하던 참새들마저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되였었다.

신천에 생겨난 백둘어린이묘와 수산리, 거제도, 제주도, 대전과 로근리에서 벌어진 참변들이 실증해주다싶이 조선전쟁은 무차별폭격, 대량학살이라기보다 인류전쟁사에 찾아보기 힘든 《멸살》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할만큼 살륙과 범죄의 극치를 이루었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생화학무기로 공격하고 지어 핵참화까지 들씌우려고 미쳐날뛴것이 바로 악의 제국인 미국이다.

미제는 추종국가무력들을 줄줄이 끌어들이고 온갖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대망살륙전, 파괴전을 벌리면서 3년동안 전쟁을 치르었지만 끝내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패하고말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보총으로 원자탄을 휘두르며 오만무례하게 날뛰는 미제를 온 세계앞에서 보란듯이 무릎꿇게 만들어놓았다.

미제의 성조기에 불을 달고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린 그때부터 우리는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해왔다.

조선전쟁은 종결되지 않았다. 정전은 전쟁의 일시적인 중지일뿐 평화가 아니다. 현재 조선반도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 국제전문가들도 미국이 개입한 전쟁들가운데서 가장 오래 하고있는 전쟁은 조선전쟁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전야의 초긴장상태에 놓여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패당과 작당하여 해마다 대규모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일삼고있다.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것들을 벗어던지면서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도발하려 하고있다. 원인모를 자그마한 사건으로 정세가 일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지난해 8월사태도 미국이 남조선괴뢰패당과 감행한 《을지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배경으로 하여 빚어졌다.

민족대기만 남았던 《유엔군사령부》를 부활시킨 미제는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1950년대의 전쟁때와 같이 조선반도에 다국적무력을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심지어 미국은 남조선에서 대규모핵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을 때마다 일부 어중이떠중이 추종국가무력을 여기에 참가시키군 한다.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자의 수치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의 교훈도 망각한채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전승의 력사를 말살하고 세계제패야망을 한사코 실현해보려 하지만 그것은 실현불가능한 망상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의 모습만 달라진것이 아니라 지위도 달라졌다. 우리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이 되였다. 최근 우리의 국방과학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는 우리도 적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강력한 선제핵공격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하였다.

제2의 조선전쟁도발은 미제의 종국적멸망이다.

미제가 지난날의 패전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해줄것이다.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깨끗이 쓸어버리자는것,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에게 종국적멸망의 마지막페지를 써주고야말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리 경 수

# 박근혜패당은 북남합의를 전면부정하고 악랄하게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괴뢰패당이 우리의 핵보유가 북남합의의 파기라고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6돐을 맞으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때에 박근혜패당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죄악을 가리워보려고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를 걸고드는 황당무계한 망발을 줴쳐대여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냈다.

얼마전 괴뢰통일부것들은 그 무슨 《6.15공동선언관련 립장자료》라는데서 우리의 핵이 북남합의의 기본정신을 파기하고 북남관계를 가로막고있다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괴뢰보수언론들과 알짬이 《대북전문가》들도 이에 합세하여 우리의 핵시험과 한도로케트발사때문에 북남대화와 교류, 협력이 단절된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괴뢰패당이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파렴치한 술책이며 북남합의의 기본정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북남합의의 기본정신을 파기하고 북남관계를 오늘의 지경으로 만든것은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나 한도로케트가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고립압살할 개꿈을 꾸면서 매국매족행위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박근혜패당이다.

박근혜패당이 집권한 첫날부터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북남합의들을 무참히 짓밟고 대화와 협력, 교류를 전면차단하여 북남관계를 완전히 도룩내였다는것은 내외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된 6.15북남공동선언을 감히 《용공괴적문서》로 모독하고 지어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북남수뇌상봉담화록까지 공개한것도 괴뢰보수패당이며 북남화해와 협력의 상징이고 6.15의 옥동자인 개성공업지구를 하루아침에 전면폐쇄한 극악한 반통일대결무리도 박근혜패당이다.

뿐만아니라 박근혜패당은 얼마전에도 핵동력잠수함 《미씨씨피》호와 전략폭격기 《B-52H》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며 정세를 위험천만한 핵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하였다.

제반 사실은 북남합의의 기본정신을 악랄하게 유린말살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에 몰아넣은 장본인은 다름아닌 박근혜패당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철면피하게 북남합의의 기본정신을 운운하며 그 무슨 《파기》니, 《위반》이니 하고 우리를 억지로 걸고드는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만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재난을 몰아오고있는 괴뢰패당은 애당초 북남합의에 대해 떠벌일 체면도 자격도 상실한지 오래다.

문건대 우리의 핵보유가 북남합의의 기본정신을 파기하는것이라면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훨씬 이전부터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를 끌어들여 동족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일삼아온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괴뢰패당이 우리의 한도로케트발사가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떠들어대지만 북남관계가 악순환을 거듭하고있는것은 남조선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는 동족을 겨냥한 북침핵전쟁연습광란때문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다.

박근혜패당이 북남합의들을 파기하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는 주범이 누구인가를 알고싶으면 지금까지 저들이 저지른 반공화국대결망동을 돌이켜보고 북남합의들에 관통되여있는 민족자주정신, 우리민족끼리정신에 대한 공부나 똑바로 해야 할것이다.

그러면 북남선언들을 란폭하게 짓밟고 북남관계를 결딴낸 대역죄를 스스로 폐닫게 될것이며 더이상 그 누구를 걸고드는 궤변을 늘어놓지 못하게 될것이다.

박근혜패당은 북남합의들을 전면부정하고 악랄하게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라오스

라오스는 아시아대륙의 남부에 위치하고있는 내륙국이다. 대부분지역이 산지와 고원으로 되여있으며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덮여있다.

19세기 후반기부터 식민주의자들의 무단한 침략을 받아온 라오스는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무장투쟁에 의해 1945년 10월 독립을 이룩하였다. 그 이후에도 라오스땅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의 마수가 끈질기게 뻗치였다. 오래전부터 라오스에 대한 침략야망을 품어오던 미제는 친미반동세력들을 사촉하여 내란을 일으켜 라오스애국력량에 대한 전면공격에로 내모는 한편 저들이 직접 침략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하지만 라오스인민은 반미항쟁을 줄기차게 벌려 마침내 1975년 12월 미제를 몰아내고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라오스인민은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의 길에 신심드높이 들어서게 되였다.

오늘 라오스인민은 사회적안정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품팔리 싸이냐쏜주석은 지난 40년간 공화국이 이룩한 성과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당과 국가의 일군들과 로병들, 인민들이 고귀한 생을 바친 결과라고 하면서 당의 령도적역할과 위력을 강화하고 주권기관들의 기능과 효과성을 높여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덜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서 벗어나는것을 총적과업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는 지금 나라의 경제발전목표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경제개발지대건설이 추진되고있다. 지난 5월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부지면적이 1 149㎢에 달하는 이 지대에서 에네르기 및 화학공업, 농산물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등 부문의 기업체들이 가동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 이 지대의 하부구조건설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문명퇴치사업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농촌과 산골마을의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주기 위해 필요한 교육설비들을 보내주고 부족되는 교원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문명퇴치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한편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소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말 이 나라에서는 발전능력이 13만kW에 달하는 수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여 나라의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라오스는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6월 24일은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2돐이 되는 날이다.

림 원

## 로씨야방송

# 미국빈곤자들의 불우한 처지 폭로

최근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이 미국에서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빈곤자들의 처지에 대해 폭로하였다. 방송은 미국에서 4세대중 1세대는 소득의 70%이상을 세금으로 바치며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그 가족은 즉시 한지에 나앉게 된다, 우발적인 입원비와 자동차수리비까지 겹쳐 빈곤자들의 처지는 말이 아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의 한 평론가가 최근에 발표한 《남성들은 구속하고 녀성들과 아이들은 쫓아내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빈곤자들의 형편을 적라라하게 펼거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대다수 빈곤자들은 2000년이후 50%이상 뛰여오른 세금을 내지 못해 년중 물과 전기도 공급되지 않는 집에서 지내고있다. 가난한 로동자수는 미국인구전체의 50%에로 육박하고있다. 빈곤자들은 장애자나 일할수 없는 환자 등과의 결혼 등 세대를 합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수 없는탓에 폭력과 절도, 마약사용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며 자라나 결국 전과자로 전락되고만다.

미국에서 현재 빈곤자들의 형편은 1930년대 대공황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힘을 합쳐 항거해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다.

1930년대에는 지역들에서 파업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는 빈곤자들의 반항이 경찰 등에 의해 사전봉쇄되고있다. 때문에 빈곤자들은 마약사용 등으로 현실을 회피하고있다.

## 일본에서 미군기지반대투쟁

일본 오끼나와현의 나하시에서 19일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일본에서 미군철수를 요구하여 시위

집회에는 현지사를 비롯한 6만 5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지난 4월 주일미공군기지소속 미국인이 죄없는 한 일본인녀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숲속에 내버리는 짐승같은 만행을 저지른데 대해 규탄하였다.

또한 그들은 현에서 미군의 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데 대해 단죄하고 일미 두 나라 정부가 피해자가족과 현내주민들에게 즉시 사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오끼나와현으로부터 미군기지를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패배자의 고백을 통해 본 조선전쟁의 진상

흰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것도 희다고 하며 생떼를 부리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미제는 66년전에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들씌워보려 하였고 지금도 그것을 남득시켜보려고 요술을 피우고있다. 력사는 조선전쟁의 도발자가 바로 미제라는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 무엇때문에 조선전쟁이 필요했는가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윌리암 테일러와 이 연구소 부리사장 아모스 에이. 죠단은 공동으로 쓴 《미국의 국가안보정책과 그 과정》이라는 책에서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이 일으킨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직후 트루맨은 평전을 선포하고 대쏘봉쇄전략을 들고나왔다. 트루맨이 긴급해결할 과제는 대쏘봉쇄전략에 맞는 군사력을 확보하는것이였다. 이를 위해 트루맨은 국회에 국방예산을 늘여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 요구를 묵살하였다. 1949년 쏘련에서 핵폭발시험이 진행되고 중국혁명이 승리하자 트루맨은 더욱 난처하게 되였다.

그는 다시금 국방예산을 늘일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국방예산규모를 1949회계년도에 129억US$, 1950회계년도에 130억US$의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어떤 위기도 조성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떻게 국방예산을 늘이고 군사력을 증강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트루맨이 안고있던 난문제는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에 의하여 해결되였다. …

조선전쟁은 바로 미국의 재무장을 가능케 하였다.》

## 전쟁도발지령을 가지고 기여든 덜레스

1950년 6월 17일 미국대통령의 특사로 서울에 기여든 덜레스는 미군사고문단과 괴뢰군 우두머리들을 거느리고 38° 선일대를 싸다니면서 전쟁도발준비상태를 최종적으로 점열하고 리승만역도에게 이렇게 지껄였다.

《시기가 도래하였으니 북조선에 공격을 개시하라. 만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 이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특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하여서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

그후 덜레스는 남조선괴뢰들을 보아놓고 《내가 이번에 트루맨대통령의 특사로 남조선에 오게 된것은 우리가 극력 추진시켜온 북진준비정형을 점토하고 부족되는 점이 없다면 지체없이 북진을 개시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뇌까리였다.

서울에서 도쿄로 간 덜레스는 기자들앞에서 조선에서 《미국이 위하려고 하는 적극적행동》이 바야흐로 개시될것이라는것을 공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도서 《미사조선전쟁》에는 덜레스가 말한 《적극적행동》에 대하여 그것은 《6월 25일 조선전쟁의 발발과 6월 27일 미국정부가 내린 대규모간섭의 결정》이였다고 폭로하였다.

조선전쟁은 이렇게 되여 일어났다.

## 전쟁전야의 추태

1950년 6월 24일 아침 트루맨은 처, 딸과 같이 주말휴식을 보낸다고 하면서 전용기를 타고 고향 미주리주로 갔다.

이에 대해 미국도서 《조선전쟁 : 대답없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동아시아문제담당차관보던 러스크는 서울로부터의 보고(전쟁발발소식)에 접하자 저녁식사를 하다말고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중간급관리들을 어퍼명 호출했다. 그러나 국무장관 애치슨이나 대통령 트루맨에게는 조선에서의 위기가 즉시에 전달되지 않았다. 메릴랜드주근처의 자기 농장에 있던 애치슨은 몇시간후에야 이 소식을 전달받았으며 미주리주의 고향에 가있던 트루맨대통령은 이 소식을 더 늦게 전달받았다. 그것은 이상야릇한 일이였다. 미국이 싸운 세번째로 값비싼 전쟁전야에 미국의 립장을 대변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장관 둘 다 외출하였던것이다. …

그들의 초기행동들로 판단해볼 때 여기에는 확실히 음모적인데가 있다.》

## 전쟁도발을 암시한자들

노르웨이선박 《파아프루드》호 선장은 조선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미국선교사가 자기에게 달려와서 《이제 곧 전쟁이 터질수 있으니 650명의 미국인부녀자들을 배에 싣고 남조선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실토하였다.

1950년 6월 24일 당시 미중앙정보국 장관은 워싱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종뉴스》가 있으나 아직 발표할것이 못되니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하면서 《오늘밤 아니면 래일 아침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자의 실토를 통해서도 조선전쟁의 도발자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6.25전쟁은 이처럼 간악하고 교활한 미제가 면밀한 사전준비밑에 도발하였다.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늘도 새 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다. 력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전쟁의 길로만 줄달음치는 미제침략자들은 종국적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ㄱ-61102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